

(주)삼원팩 대표 윤석기

포장 자동화 부문 선두주자
계속 도전하고 혁신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주)삼원팩(대표 윤석기·성경락, 서울 금천구 서부셋길)은 지난 1991년 설립된 포장기계 전문 기업이다.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았다. 국내 포장 자동화 부문의 선두주자로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윤석기 (주)삼원팩 대표는 투명경영과正道(正道)경영을 기치로 회사를 이끌어 왔다.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한 터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매년 꾸준하게 성장해 국내시장에서는 상위권의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의욕만으로 회사를 다시 살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사업에는 왕도가 없고 정답이 없기에 그저 진심을 다해 열심했다”고 말했다.



서울 전시장



고객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윤 대표는 조급함을 버리고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품질 고급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에 방점을 두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제함기, 테이핑기, 랩핑기, 결속기 등 현재 삼원팩이 생산·공급하는 다양한 포장기계는 작업속도와 효율을 높여 국내 포장 자동화 부문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선별·포장라인은 전국 농협 공동선별장에 공급 중이며, 식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개별 주문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포장 자동화 작업의 수행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하고, 작업환경을 무인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하고 있다. 해마다 직원 1~2명을 나치(NACHI) 등 일본 로봇기업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거나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일본 협력기업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직원에게 투자하고 좋은 기회를 제공해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도 해 안타깝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한다”며 “직원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원팩의 제품은 해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수출 중인데 이는 일찍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 그는 “수출 초창기만 해도 우리 제품은 중국산과 일본산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였지만, 빠른 작업속도와 정확도 등 차별화된 요소를 잘 살려 한때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기도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환경이 불확실하지만, 수출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내비치며, 최근 서울 본사에 새롭게 오픈한 전시장을 통해 국내외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끝으로 “회사 설립 때부터 코스닥 상장을 꿈꿔 왔고, 앞으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할 것이다”며 “포장기계 전문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성장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삼원팩 ☎(02)2107-7260



“포장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반자동 하부제함 상하동시 테이핑기



수평형 비닐접착기



로봇랩핑기



전자동제함기